

서호인의 '소설처럼'



나폴리가 우리에게 준 것 -정대건 소설 '부오니시오, 나폴리'

여행과 경험은 다르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곳이 어디든 잠깐 스쳐 지나듯 자유를 만끽하고 오는 여행과 삶을 유지하고 일상을 지탱해야 하는 경험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낭여행으로 들른 유럽의 식당과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러 매일 출근하는 유럽의 식당은 같을 리 없다. 이곳의 삶이 지쳐 위안 삼아 떠나는 여행으로는 결국 이곳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테다. 대체로 우리의 삶은 급격히 방향을 꺾기보다는 살차 쉬었다 가기를 더 필요로 한다. 휴식과 위로, 그리고 다시 일상... 이러한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여행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행 중인 게 아니다. 그는 삶의 경로를 바꾸기 위한 진지한 체험의 경로에 있다.

소설은 크나큰 사건이나 반전 없이 두 인물의 대화에 집중한다. 둘은 내심 갖고 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을 스스럼 없이 공유한다. 이는 어쩌면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볼 일 없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대화 속에 둘의 감정과 심리는 묘하게 곱씹힌다.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당신으로부터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쉬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일 것이다.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나폴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일이?

결말은 소설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작가는 전작인 '급류'에서 보여주는 솜씨대로 사랑의 감정과 과정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묘사하고 진술한다. 어느덧 우리 소설에 사라진 듯 보이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소설과 밀접하게 결부시킨다. 덧붙여 작가는 나폴리이라는 도시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발설한다. 소설의 내용에 있어 배경이 되는 도시가 꼭 나폴리일 필요는 없겠으나, 정대건 작가가 앞으로 이뤄낼 작업과 작품에 있어

나폴리는 무한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오니시오, 나폴리'와 짝지를 이루는 그의 산문집 '나의 파란, 나폴리'에서 이러한 사랑과 열정은 더욱 도드라진다. 여행이든 체험이든 당장 남 이탈리아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충동을 선사하는 책이기도 하다.

여행은 경험이 될 수 있는가. '부오니시오, 나폴리'의 주인공 '선회'는 여행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주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다. '나의 파란, 나폴리'에서 작가는 여행에서 발견한 자신의 다른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여행이 경험이 되고 안 되고는 여행자 스스로에게 달린 듯하다. 소설의 주인공이나 소설의 작가나 모두 여행에서 만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으로 그 도시에 예의를 다하였다. 예의를 갖춘 여행자에게 도시는 많은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폴리에 간 사람들은 나폴리 특유의 파란색을 얻어오는 게 아닐까. 나폴리에서 선회는 캐나다로 떠날 용기를 얻었다. 나폴리에서 작가는 작가로서의 삶을 보다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나폴리는 어디인가? 그곳을 찾아 최선을 다한 여행을 떠나길 바란다.

<시인>

의료칼럼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목 디스크의 비밀

고, 관절통은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으로 인한 통증이다.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은 어깨 위쪽 또는 날개뼈 안쪽으로 비교적 넓게 통증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다.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을 뚜렷한 특징은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어깨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 디스크와 어깨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목 디스크의 두 번째 비밀은 간단한 자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면 목 디스크이고, 어깨를 돌려서 어깨가 아프면 어깨 문제이다. 조금 더 확실한 구분법은 팔을 위로 들고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목 디스크이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팔을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한쪽 팔을 머리에 올리고 진료실로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심중 팔구 목 디스크이다. 물론 목 디스크와 어깨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7%에서 많게는 50%까지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목 디스크와 어깨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정형외과 중증 병원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 디스크의 선천적 약화, 선천적인 문제도 있다. 일부 가족에서는 디스크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흡연은 디스크의 마모를 가속화한다. 흡연은 디스크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킨다. 목 근육은 활동성 충격 흡수 장치이다. 목 근육이 없으면 목 디스크가 모든 힘을 흡수해야 하므로 디스크가 더 빨리 닳아지게 된다.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목 디스크의 세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점이다. 목 신

경주사는 드라마틱한 통증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목 신경 주사는 간단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숙련도를 요하는 시술이다. 지역에서 정확한 신경 주사가 가능한 병원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

목 신경 주사로 통증을 줄인 이후에 비수술적 디스크 감압 치료 및 경추 전인 치료로 3주 정도 착실하게 치료를 받으면 목 디스크의 악화를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목 디스크 수술은 보통 3개월 정도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시행을 하도록 심사평가원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물론 척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조기 수술의 경우도 있다.

목 디스크의 마지막 비밀은 단순히 통증이 없어졌다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탈출된 목 디스크의 활동성이 줄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디스크가 흡수되어서 신경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수개월,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통증이 금방 다시 재발할 수 있다.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정기적인 경추 견인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의 운동이 비밀의 열쇠이다. 가슴을 짚고 양팔을 벌려서 뒤쪽 날개뼈가 모아지게 한다는 느낌을 만들고, 목을 뒤로 가볍게 젖혀주고 10초 정도 멈춘 후에 풀어준다. 이러한 동작을 할 때 몸의 큰 근육, 척추의 가운데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틈틈이 이 운동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증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 시에 통증을 더 느낀다면 일단 이 운동을 하지 말고, 먼저 목 디스크 치료 후에 다시 시도해 보길 권한다.

기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교육협력관 행정학박사

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체 설치 의무화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올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선정, 교육통합 지원체계 구축, 신입생 입학준비금 협의·조정,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분담지원 합의는 양쪽 기관의 이해득실을 떠나 교육 협력의 성과물이다. 현행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된 상황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교육 협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교육 협력은 기관 간 지원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공동 대응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협력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을 공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교육 협력은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 발전 전략과 지역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025년 예산안의 최대 화두는 세수 부족과 재정 압박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

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 특히 올해는 세수 감소 여파로 이미 편성된 예산까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른 수건 짜내듯' 예산을 줄이고 이미 졸라맨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맨 형국이다. 교육 협력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교육협력과 협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교육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광주시-자치구와 연계 협력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성장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도 미래교육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은 재정이 어렵다고 멈추거나 뒤로 미룰 수 없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아야 교육이 바뀌고 광주가 달라진다.

교육 협력은 소통이 중요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다시 지역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 광주는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교육 협력은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 교육이 지역발전의 희망이기 때문에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社說

공항 이전...정부·민주당 참여로 속도내야

교착상태에 빠졌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와 민주당의 협의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들과 국가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당도 TF 구성을 통해 공항 이전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이었던 공항 이전 문제를 전국 현안 사업으로 전환시킨 광주시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이전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광주시는 이제 그동안 입장차를 보였던 전남도·무안군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항 관련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 등 세 지자체가 잡음 없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 설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을 통해 여당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지자체가 동일체로 움직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야 지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항 이전

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의 차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12월 중 광주·전남·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가칭 광주·전남·상생발전 TF 구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한 모습을 보였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할 수 있는 탓이다. 사·도는 범정부 협의체를 활용해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호남지역 지지를 필요로 하는 여당에게도 이해를 구해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 전동보장구 제도 보완 시급

광주·전남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의류용 스쿠터 인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우산동과 장성군 황룡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 80대 이용자가 도로 역주행과 무단 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순천시 풍덕동과 광주시 서구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던 70, 80대 남성이 강물에 추락하고, 승강기 통로에 빠져 중상을 입었다.

전동 보장구(保障具)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동 휠체어는 무게 100kg에 최대 시속 15km로 달릴 수 있어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동 보장구는 현행법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로 분류되고 있는 등 관련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전동보장구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면허증이나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고, 안전장치 설치의무도 없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행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은 본래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보도블록 요철 등을 이유로 편이상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문에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로로 이동하는 전동 보장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전동 보장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미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전동 휠체어와 의류용 스쿠터 등에 후미등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등지에서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헬멧과 안전벨트 착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의견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를 다룬 '모모는 철부지'는 출간된 후 한 차례 '새 옷'을 입었다. 광주문화재단과 동네 서점들이 진행한 '광주면면'을 통해서다. 광주에 대한 책이나,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펴낸 책에 지역 작가들의 그림을 담은 '특별한 북 커버'를 제작한 프로젝트였다 '모모는 철부지'는 전일가요제의 산신인 전일빌딩이 등장하는 박성환 작가의 '금남로'가 표지였다.

또 '골키퍼의 환혼'과 '엄마의 영어일기'에는 신양호 작가의 작품이, '연어가 돌아오'는 시간'에는 노여운의 '영산강'이 실렸다. 겹치리

책 표지

책을 읽는 호랑이의 모습이 익살스럽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출판되면서 책 표지로 한국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고 있다.

광주 출신 이정록 작가의 사진 '사적성소'(Private sacred place-p#3-1)는 아델피 출판사가 펴내는 '작별하지 않는 다'의 이탈리아판 표지로 쓰였다. 나주호의 '영산강'에서 기르던 양관 영무새가 등장하는 작품은 수목과 같은 아스라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화의 극사실 기법을 결합해 붉은색으로 산수를 그린 '붉은 산수' 연작의 이세현 작가 작품도 우프바우출판사에서 출간 예정인 '작별하지 않는다' 독일어판 표지로 쓰인다.

최근 새로운 책을 접할 때면 예술작품 못지 않은 표지들에 감탄하곤 한다. 책 내용과 딱 맞는 그림을 고르는 안목에 놀라고, 세련된 디자인 감각에 탄성이 나온다. 광주의 대표 행사인 디자인비엔날레에서 북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흥미로울 것 같다. 마침 광주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으니 더 없이 어울린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